

# 식품가격 인정 위해 '수입촉진 · 수출제한' 조치 잇달아

‘공급정체 · 수요지속 증가’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  
中 ‘수출세환급 폐지 · 수출관세 부과 · 수출쿼터제 실시’로 물가안정 노력

**국** 제 곡물가격 급등’, ‘애그플레이션 위협’, ‘식량안보’ 등등. 지난해부터 각종 언론보도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고 있는 단골메뉴들이다. 그동안의 보도내용을 요약해보면 주요 내용은 이렇다.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곡물의 생산보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재고량이 감소하여 국제 곡물가격이 2006년 중반부터 급등하였다. 이 과정에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이른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의 위협이 확산되고 있으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곡물가격지수의 변화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2007년 9월 국제 곡물가격지수는 2006년 1월 대비 98.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008 농업전망, KREI). 주요 곡물의 국제 선물가격도 옥수수는 지난 2년간 132.9% 급등했고, 밀과 대두는 같은 기간 각

각 182.9%, 151.5% 급등했다(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 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2008, KREI).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은 공급이 정체된 상황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식용 및 사료용 곡물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고, 최근 들어 유가 상승으로 대체연료인 바이오에탄올 원료용 곡물 수요의 급증이 수요 증가를 초래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송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곡물 생산비용의 증가와 국제 투기자본에 의한 투기수요의 증가도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 고민 더해가는 ‘중국 식량문제’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곡물

수입국들은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식품 가격 상승과 물가상승 압력에 직면하여 곡물 확보를 위한 관세인하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곡물 수출국들도 잇달아 자국의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곡물 수입촉진 및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공급국이자 세계 곡물 소비의 블랙홀인 중국도 동참을 선언했다.

중국의 곡물 수출제한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2007년 12월 20일부터 쌀, 밀, 옥수수, 콩 등 84개 품목의 식량작물 원료 및 제분제품에 대해 적용해오던 13%의 수출세 환급을 폐지했다. 다음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한 해 동안 밀, 옥수수, 쌀, 콩 등 식량작물 원료 및 제분제품 HS-8단위 57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5~25%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맥류와 맥류 제분 제품에는 각각 20%, 25% 그리고 옥수수, 쌀, 콩에는 5%, 그 제분 제품에는 10%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밀가루, 옥수수가루, 쌀가루 등 곡물 제분제품에 대해 수출쿼터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중국의 식량문제는 1990년대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위협론이 대두된 이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위협론의 연장선상에서 Brown은 자신의 저서 《Who will feed China?》(1995)에서 이른바 중국 발 '식량위기론'을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이 경지면적 감소와 생산 환경의 악화로 공급량은 감소하는 반면 인구증가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식량 및 사료용 곡물의 수요는 증가하여 2030년경 심각한 식량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 Brown의 예측이다. 중국이 식량부족을 해소

하기 위해 곡물수입을 증가시키면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결국 수입능력이 제한적인 기타 개발도상국가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것이 '중국 식량

위기론'의 핵심이다. 다행히 아직까지 Brown이 예측했던 식량위기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식량소비국인 중국의 식량문제가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경고하고 있다.

역사 이래 인구압력은 중국의 숙명이 되었으며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중국은 전 세계 경지면적의 7%로 세계 인구의 1/5에 가까운 13억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커다란 인구압력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인구증가와 함께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수준 향상으로 식용 곡물뿐만 아니라 사료용 곡물의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식량안보의 확보가 중요한 당면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작부체계의 변화와 농지감소 등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연속 식량생산이 감소했던 경험은 새롭게 출범한 후진타오 정부에게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후진타오 정부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2005년 식량 생산능력(capacity)의 향상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시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였다. 특히 국제 곡물수급의 불균형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애그플레이션의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식량문제에 대한 중국의 고민의 깊이를 더하기에 충분하다.



전 형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연구센터

### ‘곡물수출 제한 조치’ 당분간 지속

최근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중국의 곡물 수출제한 조치는 세수정책과 무역정책을 결합한 매우 강력한 조치로 중국 정부의 식량 문제에 대한 우려가 깊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조치는 곡물 수출의 증가가 자국의 곡물 가격 상승에 커다란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곡물가격의 안정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중국은 2007년에 85.6만 톤의 곡물 순 수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2006년에 비해 63.6% 증가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2007년 한 해 동안 중국의 곡물가격은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유례없는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초래했다. 쌀, 밀, 옥수수 등 3대 곡물의 2007년 평균 소매 가격은 2006년에 비해 10.3%, 품목별로는 각각 5.3%, 8.0%, 19.8% 상승했다. 곡물의 도매시장 가격도 급격히 상승하여 조생종 인디카쌀, 만생종 인디카쌀, 자포니카쌀, 밀, 옥수수, 콩의 2007년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 2006년에 비해 각각 10.1%, 11.4%, 1.4%, 7.2%, 18.5%, 25.0% 상승했다.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07년 3월부터 역제선인 3%를 넘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전년대비 4.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2007년 11월 CPI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6.9%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식품가격과 곡물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8.2%, 6.6% 상승하여 물가안정이 중국 거시경제 당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곡물 및 식품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한 이번 곡물 수출제한 조치의 효과가 아직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지난 1월 춘절 식품 수요 증가와 중남부지방의 폭설로 식품 및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대비 7.1% 상승한데 이어 2월에는 8.7%나 상승하여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물가안정에 대한 기대를 무색하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06년도 중국의 곡물 수출량이 국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시장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다분히 심리적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는 지적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닌다.



## 중국의 식량문제와 곡물수출 제한조치

중국의 식량생산은 1999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한 이래 정부의 증산정책에 힘입어 2004년부터 4년 연속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7년 중국의 식량생산량은 50,150만 톤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식량자급률은 90~9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향후 식량자급률 목표를 95%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식생활의 고도화로 인한 대두, 유채 등 유지작물의 소비 급증과 식용 및 사료용 곡물 수요의 증가로 인한 곡물 수입의 증가는 중국의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농업인프라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의 요인을 고려한 중국 정부나 중국학자들의 식량수급 전망 결과는 Brown이 염려했던 비판

론보다는 낙관론에 가깝다.

식량수급에 커다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중국의 국내 곡물가격이 상승한 것은 계절적인 수급 불균형과 사료용 및 대체연료용 곡물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중국의 곡물 수출제한 조치를 통한 물가안정 효과의 실현 여부는 국내 곡물수급 상황, 특히 올해 작황 및 생산량 그리고 국제 곡물가격 동향 등 내외부적 여건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 곡물가격이 최근 급등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지속하거나 혹은 당분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간절히 염원하는 중국 정부에게는 분명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2005년 이후 3년 연속 11%의 고성장률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과열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거시경제의 운용 차원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애그플레이션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력한 것이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중국의 곡물 수출제한 조치는 그 목적을 가시적으로 달성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실시되고 있는 수출세 환급 폐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같은 맥락에서 수출통제에 커다란 효과가 있는 수출쿼터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수출관세 부과조치도 2008년 한 해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했지만 내외부적인 여건으로 인해 물가안정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Y

